

신나는 방학을 위해 모반이 꼭 필요한 당신

여대생은 2달 3초라는 말 때문에 소심해지기도, 화가 나기도 하는 당신
 여자가 혼자 밥먹으면 궁상맞아 보일까 망설이는 당신
 다리벌리고 앉는 아저씨 때문에 지하철에서 자리를 내준 적이 있는 당신
 여자가 화장도 안하고 다니는 반박을 들어본 당신
 다이어트하며 먹고 싶은거 참느라 힘들었던 당신
 폰수라고 남자친구한테 차여본 경험이 있는 당신
 술자리에서 남자선배들의 친절함이 느껴졌던 당신
 여자는 시집만 잘가면 된다는 말이 듣기 싫은 당신
 여자 작업이 아정도면, 이런말이 듣기 싫은 당신
 무조건적인 순결교육이 파종나는 당신
 (모반이 꼭 필요한 당신 E-mail이나 언니네 커뮤니티로 메시지 남겨주세요)



모반스를 만날 수 있는 곳

<http://www.unninet.co.kr> 언니네에 가입하고 커뮤니티에서 '모반' 검색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주소는 <http://moban.w0.to> (먼저 언니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방학동안 모반스는 무엇을?

여성장애인에 관련한 영상물 보고 이야기하기
 여성과 과학기술 이야기하기 [커리-페미니즘과 기술]
 성매매에 대해 고민하기 [커리-용감한 여성들 녹대를 타고 달리는]
 그밖에 함께 하고 싶은 스터디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와 모반이 함께하는 오티!

소식지 작업에 함께한 모반스

w-turtle@orgio.net 쉬리 (시학00 조노은진)
 ramcoco@hotmail.com 복지 (철학00 정주희)
 ssjin27@hanmail.net 샘 (불문00 김남수진)
 noraesarang@orgio.net 노래 (노문00 이은현)
 blueyoen@hanmail.net 파론 (영문00 심연희)

소식지 작업에 도움준 그녀들

솔레, 아랑

모반을 꿈꾸다

부제 : 방학때 뭐할거니?



INTRO. 중도 6층에서 머리를 쥐어 뜯으며..

어떤 방학 1. 자취하는 그녀의 이야기

어떤 방학 2. 아르바이트하며 자립을 꿈꾸던 그녀의 이야기

어떤 방학 3. 살빼고 이쁘지고 싶은 그녀의 이야기

어떤 방학 4. 멋진 여성주의자로 살고싶은 그녀의 이야기

이런 방학 5. 책, 만화 소개

OUTRO. 당신의 신나는 방학을 보장하는 모반

》》 문과대 여성주의 모임 '모반'

공꾸다

중도 6층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아우.. 지겨워.

고등학교때는 몇시간씩 잘도 잤아있었는데

대학와서 주구장창 놀았더니 엉덩이 붙이고 있기도 힘들다..

그런데 내 필기노트 가져간 방순이는 왜 아직도 안오는거야?

아구구구구구...

나가서 커피라도 마시면서 기다려야겠다.

어머! 학순아~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썩었니? 공부하느라 많이 상했구나!

그래도 너나 나나 방학하면 이제 호강하는거야!

집에 가면 오랜만에 딸들 왔다고 맛있는거 하고 난리잖아

근데 방학때 내려갔다오기만 하면 살찌서 미치겠어!

너도 그래? 어머머 나만 그렇게 아니구나~

이번 방학에 나도 살좀 빼보려고.

대학가면 저절로 빠진다는거 다 거짓말이더라!

아, 방순! 너 왜 이제 오는거야! 자 커피 마셔.

방순아 근데 넌 방학때 뭐할거니?

독립준비? 무슨 아르바이트 할건데?

아.. 그래, 그런 아르바이트 재밌겠다!

나도 방학때 돈좀 벌면서 알차게 보내야 할텐데..

대학생이나 되서 엄마한테 손벌리기 미안하지 않냐?

그래~

우리 방학동안 열심히 돈도 벌고 살도 빼고 이뻐져서

개강하면 멋지게 변신해 돌아오자!

그래! 기말고사도 파이팅!

우리의 멋진 방학도 파이팅!



2

문과대 여성주의 모임 '모반'



어떤 방학 1.

자취하는 그녀의 이야기

2002년 6월 0일 02 : 00 a.m

공부 좀 해보겠다고 도서관에 앉아서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공부를 붙잡고 쫓겨대다가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11시쯤 집에 겨우 왔다.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집안결은 가판이었다. 바닥엔 먼지가 가득하고, 일주일 은 족히 밀린 설거지와 빨래... 물이나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날짜가 지나도 한참 지난 우유와 곰팡이가 잔뜩 핀 음식들... 온갖 짜증과 한숨만이 밀려온다. 집에 와서 도서관에서 미쳐 다 못 봤던 부분이나 좀 보다가 자려고 했건만... 그래도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설거지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다. 청소기로 밀고, 방 닦고, 빨래를 돌리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학교 생활에 충실하기도 정말 벅찬데, 그나마 집에 와도 편히 쉴 수가 있기를 하나, 집안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다. 이런 걱정없이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집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얼마나 편할까? 따뜻한 밥과 국, 여러가지 반찬들이 웅기종기 모인 밥상에서 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이런 날이면 정말 방학하자마자 곧바로 집에 내려가야겠다는 생각뿐이다.

2002년 6월 0일

저녁에 엄마와 통화를 했다. 내가 먼저 집에 전화를 한 게 오랫동안이어서인지

3

모반을 공꾸다

엄마는 무척 반가워하시는 듯 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에 언제 내려올거냐고 엄마께서 물으셨다. 참 이상하기도 하지. 었그제는 정말 시험만 끝나면 곧바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망설여지니... 언제 가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한 일주일쯤 살다 다시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리고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통화를 마쳤다.

엄마는 내가 이번 방학에서 며칠 못 있다 올라오는 게 서운하신가 보다. 하긴, 서운해 하실만도 하지. 집이 너무 멀어서 자주 가지도 못하고 방학 때나 내려가는데, 그나마도 작년부터는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일주일 정도 밖에 안 있었으니...

집에 내려가서 딱 이틀까지는 정말 마음 편하고 좋다. 오랜만에 찾아온 고향집도, 부모님도 정말 반갑고 편하기만 하다. 서울에서는 비싸서 돈주고 사 먹기 어려웠던 먹을 것들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다. 시험과 숙제에서 벗어난 기분을 한껏 느끼기에는 집만한 곳이 없다.

그런데 사흘째부터는 약간씩 지겨워진다. 엄마의 잔소리도 조금씩 시작되고, 만날 친구들도 이미 다 만났고, 심심할 때 돌아다닐 곳도 마땅치 않다. 귀가 시간을 칼같이 지켜야 하고, 집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밖에서도 담배를 마음대로 피울 수도 없다. 일주일쯤 되면 어서 빨리 올라가고 싶어진다. _-::

히유... 이번 방학에도 내려가기는 해야하는데,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런데도 집에 내려갈 생각하면 설레는 것을 보면 참... 딜레마 dilemma다.



어떤 방학 2.

아르바이트하며 자립을 꿈꾸던 그녀의 이야기

1. 첫 번째 이야기

1학년으로 처음 맞는 방학 동안에 뭘 할까 무지 많이 고민했었다. 과외 자리도 생각만큼 쉽게 들어오지 않았구... 또 식상하게 하는 과외보다는 뭔가 좋은(?) 일을 해 보고 싶었다.

이것저것 인터넷을 뒤지다가, 좋은 자리를 알아냈다. 와아~ 예술의 전당에서 안내를 하는 아르바이트 자리 공고가 붙은 것이다~ 이야~ 예술의 전당이라~~ 안내하는 일이지만 되기만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이력서라는 것을 써 보았다.

드디어 면접날, 무얼 입을까 무척 고민하다가... 에이 그냥 1학년 학생인데 단정하게만 입고 가면 되겠지... 하고 니트에 청바지를 입었다. 화장도 얇게 하고 본 내 모습은 정말로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면접은 굉장히 사무적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멀뚱히 서 있고, 도도해 보이는 여사무원이 나와 내 이력서를 달갑지 않은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첫 마디...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예...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냈어요."

"여기는 원래 누군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채용되기 힘든 것도 몰랐나요?"

"어... 몰랐는데요..." (헛, 그러면 공고는 왜 붙이나? _-_-)

"어머, 재수했네요? 근데 여기는 이런 자리 스무살만 뽑아요. 몰랐나요?"



“아, 그런가요... (교육제도의 희생자로 재수한 것도 서러운데, 이젠 또 무슨 말이야... 그리고 웬 나이제한? 예술의 전당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비웃는 표정... 갑자기 내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고문은 계속되었다.

“근데, 얼굴엔 원래 그런 여드름이 있나요? 그런 잡티 설마 없어지지 않는 건 아니겠죠? 얼굴도 별로 하얀 편도 아니네.”

“아니에요, 이를 전에 갑자기 난 건데요...” (정말 내 얼굴엔, 그리 크지 않은, 아니 아주 작은 뾰루지 하나가 나 있었다. 그거 말고는 그렇게 거부할 만한 거 없는데...)

“그리고, 면접 오는데, 정장도 없어요? 아무리 아르바이트 생이라지만 태도가 아니네요.”

“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아르바이트 생이, 그것도 1학년이 정장? 지네가 뭔데? 아님 내가 세상을 모르는 걸까... ㅜ.ㅜ)

이력서를 한참 뒤적거리던 그녀... 갑자기 경멸 어린 놀라움을 나타낸다. “어머, **동 살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솔직히 우리 동네는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었다. 서로에게 내 이력서를 돌려가며 나를 결눈질하는 그녀들에게 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들의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 그렇지...’

그만 가고 싶었다. 동물원의 원숭이도 이런 원숭이가 어디 있단. 다행히 내 신경을 더 긁지 않고 면접은 끝났다.

“그만 가보세요, 발표는 1주일 뒤에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기대하지는 마시구 다른 자리 알아보세요.”

뒤돌아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그렇게 터덜터덜 예술의 전당을 나오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안내원들을 보았다. 하얗고 예쁜 앳된 얼굴, 날씬하고 귀티나는 몸매... 머리에는 명품으로 보이는 편들이 번쩍거리는 그녀들에게 내 청바지는 확실히 초라했다.

젠장, 젠장할,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잘못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서러운 걸까. 왜 난 세상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내 머리를 원망하고 모습을 원망하고 우리 동네를 원망하는 걸까...

난 다음 날로 임마를 줄라 과외를 어렵사리 구할 수 있었다.

/2.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지방생이다. 여기서 그리 가깝지는 않은 곳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다. 당연히... 돈이 무지무지 필요하다! ~::

그렇지만, 난 나름대로 소신을 세워서 일하기로 했다. 과외도 좋지만, 그건 너무 쉽게 돈버는 것 같다는 치기 어린 생각도 들기도 했고, 나름대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나는 신촌의 ***라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좋았다. 연대생이면서도 이런 곳에 와서 일할 줄도 안다는 주인 아저씨의 칭찬을 들으면서 일할 때도 좋았고, 나는 한 번 하는 일은 잘 하자 주의이기 때문에 주위의 신뢰도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주인아저씨도 역시 이익을 추구하는 고용주이기 때문인지 부당하게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내 성격상 그런 거 그냥 못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라고 따지면, 처음에는 날 좋아하던 아저씨도 머리에 든게 많아(젠장~!) 피곤하다는 눈치가 역력했다. 뭐, 짜르라면 짜르라지, 솔직히 나같이 일하는 애가 어딴다구. 그렇지만,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나보다 두 달 늦게 들어온 남자에게 어떻게 매니저가 될 수가 있는 걸까. 일도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쳇.

뭐... 이것이 비정규직의 서러움이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 곳이 아무래도 술집이다 보니까 별별 손님이 다 생긴다.

그냥 난 남들만큼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다. 좀 말랐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마른 것은 날씬한 거니까. 음... 그런데 왜 그렇게 치근덕대는 남자들이 많은 걸까.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 술집에서 일한 다 그건가?

저변에는 단체 남자 손님들을 받은 적이 있었다. 아마 보아하니... 우리 학교 대학원생들이 교수님 모시고 온 듯하다. 뭐, 보통 손님이려니 하고 나는 주문을 받았다.



"주문하시겠어요?"

"어, 아가씨 그래요, 뭐가 좋을까... 아, 나는 ~빼엑스(이곳을 참 강조하더군) 온더 비치 주세요."

순간 왁자지껄 터지는 웃음... 나를 바라보는 능글맞은 눈빛, 절만하면 엉덩이에 손 올라올 분위기였다. 기가막힌 나는... 그러나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그 곳에 서서 주문을 받았다.

그 날따라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는 날이었다. 홀에는 또 나와 다른 한 명밖에 서빙을 하고 있지 않아서 더 고달팠는데... 그래서 서빙이 좀 늦어졌었다. 그런데... 그 놈이 또...

"어이, 아가씨~ 내가 주문한 ~빼엑스 온 더 비치는 언제 오는 거야?"

하, 참... 저 미친 놈, 나이는 헛먹었다... 뭐라 할 수 없는 수치심 역시 느껴졌다. 홀에 있는 손님들 다 쳐다보면서 웃고, 그 테이블은 그게 그리도 재미있는지 또 한 번 뒤집어진 듯 했다. 그래, 너희들은 그런 족속이지. 서빙하는 여종업원 하나 바보만드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해소하는 일이겠니. 그렇지? 휴... 그렇지만 이제는 별로 그런 일에 신경쓰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세상은 참 적응하기 힘들긴 하지만.

그리고 얼마 뒤, 중도에 빌릴 책이 있어서 2층 열람실로 올라갔는데... 그 날의 그 놈과 딱 마주쳤다. 내 얼굴을 기억하는지 잘 몰랐는데... 아마도 기억을 하고 있었나보다.

그 놈은 아주, 매우, 정말 놀란 눈치였다. 진짜로 그 때 술집에서 서빙하던 내가 맞는지 확인이라도 하는 듯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난 정말 재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그 놈에게는 내 손에 들린 전공책들이, 그리고 이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쇼킹했나보다.

내가 대출대 쪽으로 꺾어져 걸어가는 순간까지, 그 놈은 그 자리에서 굳은 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 참... 뭐가 그렇게 놀라운 거지?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가 사실은 나와 동등한(제엔장!) 위치의 연대생이라는 게 그렇게 믿기지 않나보지?

이 **야, 그런 너의 생각일랑 빨리 버리시지.

세상은... 열심히 살려는 모든 여인네에게 참으로 힘든 곳인가보다. 서글프다. 정말 난 과외나 열심히 해야 하는 걸까...



살 빼고 이뻐지고 싶은 그녀의 이야기

나는 아침마다 고민한다. 오늘은 신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갈 것인가. 또 백양로는 어떻게 지날 것인가... 그리고... 문대에는 또 어떻게 오를 것인가.

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 예쁘다. 남자애들 사이에서도 나는 좋은 말로 "저 정도면 보통이지 않나?"라는 소리에 기뻐해야 하는 처지이다. 물론~나는 나의 다른 면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긴 하다. 난 머리가 좋은 편이라 생각하고, 당당하게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을 즐긴다. 또, 잘 웃고, 책임감도 있고, 전공에 대한 자신도 있다. 그렇지만... 언제나 뚱뚱한 (그래, 좀 뚱뚱한 것 같다) 몸매와, 언제나 잡티가 보이는 큰 얼굴과, 잔머리가 비져나오는 굵슬한 머릿결이 항상 창피하다. 얼굴은 그리 못생긴 편 아닌 것 같은데... ㅜ.ㅜ

난 오늘도 계획을 짠다.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운동장에 가서 줄넘기를 해야지... 밤에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지. 뒤통이 가셔도 뽕튀기만 먹어야 하는데... 맥주랑 안주는 다이어트의 적이야... 아침에 화장도 하구 향수도 잊지 말고 뿌려야지... 입을 웃도 없는데 웃은 언제 사라 가지? 현대백화점 세일 매장에는 입을 만한 옷이 있을까? 이번 주에는 토다 코사에 가서 팩이랑 아이세도우 사야지... 마스크라도 이젠 써 버릇 해야겠다... 아... 할 일이 왜 이리 많은 걸까?

그렇지만 언제나 작심삼일뿐이다. 해야 할 예습이랑 써야 할 레포트, 동아

리 세미나 커리도 읽어야 하고 과외까지 하면 정신없는 하루, 피곤해서 자다 보면 대개는 지각을 면할 정도로만 늦게 일어나서 운동은 물 건너 가버리기 일쑤고...

벌써 2학년의 나이, 여대생은 2말 3초에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는데 나의 2학년 1학기는 이렇듯 바보같이 다 지나가고 있나보다. 얼마 남지 않은 2학년 말을 나는 아마도 초라하게 맞이할 것 같다... 왜 연세대학교의 여학우들은, 특히 문과대 여학생은 저렇게 예쁜 걸까? 나 빼고 다 예쁜 것 같다. 정말로!! 나는 저렇게 화장하려면 한 시간은 넘게 걸리겠다... 혹시 나한테만 버거운 일일까?

슬프다. 7.7 올해 여름에는 살 빼고 예뻐져서 캐리비안 베이에 당당하게 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수영복 한 번 주눅들지 않고 입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나의 방학 제 1순위는... 영어회화나 토플 준비도 아니고, 전공 공부나 동아리 활동도 아니고 바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다...

내가 바보 같다. 정말로 바보 같다. 남들처럼 예쁘지 않은 내가 초라하고, 이렇게 꾸밈하면서도 독하게 예뻐지려 노력하지 않는 내가 한심하고... 가장 바보같은 것은... 나의 여러 좋은 점들을 스스로 무시한 채 외모에만 신경이 곤두서서 이런 말이나 하고 있는 멍청한 내 모습이 정말 화가 난다.

그렇지만 어찌겠는가. 난 정말 변하고 싶다구. 이제까지 암암리에 받아 왔던 선배들, 동기들, 그리고 후배들의 비웃는 표정들을 2학기엔 한 방에 날려주겠다! 두고 보라구. 이번 방학에는 정말로... 예뻐질 거야!



멋진 여성주의자로 살고싶은 그녀의 이야기

고등학교 때, 서울대 나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논술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자들은 솔뚜껑 운전이나 잘 하면 된다. 사회문제엔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남자들에게 잘 보일까 하는 고민뿐이다. 너희는 대학 떨어지면 시집이나 가라!"

자극을 주려고 한 말인지 정말로 시집이나 가란 소리인지 이런 말을 뻔뻔스럽게 하시던 논술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던 나는 길길이 반항하다가 대학에 툭 떨어졌다. 그리고 고독한 재수생활, 입학, 그리고... '누구보다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민감한 똑똑한 대학생이 되어 신나는 대학생활을 하고 말것이라' 결심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 신입생 환영회 때 눈매가 최고로 느끼한 남자선배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걸 예감. 잠시 후에 나는 '새내기 어디 한번 노래해봐라' 라는 주문에 걸린 재수없는 새내기가 되었고 절대로 '빼는 여자에' 가 되고 싶지 않아 선배, 동기들 웃겨가며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다시 말해 힘껏 분수를 떨었다. 모두 즐거워하는 분위기. 그래, 그래! 신난다! 좋다! 나도 분위기 띄웠구나! 그러나 갑자기 썰렁해지는 분위기와 함께 내 볼이 빨개짐을 느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남자 선배들의 태도, 뭔가 특이한 애라는 동기들의 선입관, 다소곳한 여성이지 못하다는 괜한 자책감으로 나의 대학생활은 엉망이 되



어가고 있었다.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나는 수업과 레포트 때문에 그렇게 신나게 지낼 시간이 없었다.

지리한 한 학기를 보내고 방학동안 다시 신나는 나로 업그레이드 하고자 동아리를 찾아다녔다. 그리고 찾아냈다! 멋진 선배언니들을 만날 수 있다는 곳, 그리고 신나게 수다떨며 사회를 고민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나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맛보았다. 여자 셋이

모이면 그곳이 깨진다는 말이 있다. 그런 무시무시한 '수다'를 신나게 떨고나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모르고 지나쳐왔던 여성에 대한 억압적 시선들이 새삼 느껴졌고, 술먹고 죽자는 선배나 게임하고 망가지자는 분위기 없는 여성주의자들과의 애틀은 너무너무 즐거웠다.

방학이 끝날 무렵.. 이제 다음주면 개강이다.

어제 친했던 반 친구들과 함께 휴가 나온 선배를 만났다. 신입생환영회 때 하루종일 시다렸던 그 느끼한 눈을 한 선배다. 그때와 달리 웬지 모를 자신감과 당당함이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 선배가 그런다. 휴가나오니까 남자친구 팔짱끼고 웃으면서 다니는 여자애들이 제일 꼴보기 싫다고. 자기는 군대가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여자들은 놀고 먹는거 외에 하는게 뭐냐고. 갑자기 초등학교 시절 군인아저씨께 억지로 위문편지를 쓰던 악몽까지 떠올랐다. 또 그 선배가 나보고 그런다. 대학 입학한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화장이 그 모양이냐고, 좀 잘 해보라고.

맙소사! 나는 그동안 천국에서 살아왔구나! 이곳, 내가 늘 살아왔던 세상에 다시 나와보니 나의 거부장파리체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런데 나

의 친한 반친구들은 왜 아무말도 하고 있지 않는거지? 왜 저렇게 억지로 웃어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저들의 노동을 덜어주리라! 그래서 말했다.

"야! 너! 왜, 내가 말 놓으니까 놀랬냐? 나 재수해서 너랑 나이 똑같아! 휴가 나왔으면 집에 가서 효도나 하지 왜 학교에 와서 후배들한테 이런 감정 노동을 시켜? 화장 하나 군바리 맘에 들게 못하는 그런 꼴보기 싫은 여자애들을 불러내서 뭐 하려고 그랬어?"

"그래, 나도 내내 듣기 싫었어. 그런 말 하는거 보니까 선배는 여자친구도 없겠어요?"

"야, 일어나자"

"....."

그렇게 열을 내고 나왔다. 그 느끼한 눈이 뚱그레지는 것을 보고 나오면서 이런 불쌍한 남자들 언제 인간 만들까 답답해졌다. 그래도! 그 자리에 있던 여자친구들! 그녀들과 신나게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





“맘보걸 키쿠”

일본 만화로, 나카야마 노리코라는 작가가 그렸어요. 키쿠라는 주인공이 남자친구와의 사랑에 대해 솔직하게 풀어낸 만화책입니다. 전지현은 비교도 안 될만큼 열기적인 그녀 키쿠. 사랑이야기 플롯이랑 별다른 건 없지만, 키쿠 성격이 무척 별나서 평범한 여주인공에 익숙한 사람은 거부감 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읽다 보면 정말 느끼는 바가 많아요.

우선 이 만화는 사랑과 연애에 대한 환상을 산/산/조/각/나게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직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은 환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꼭 읽어보시길~ 환상은 언제든지 빨리 깨는 것이 좋아요! 지금 진행중인 사람도 역시 추천합니다! 읽다 보면 '바로 내 이

이야기' 라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순정만화나 드라마 속 여주인공같지 않은 내 모습에 주눅들 필요도 없구요! 오히려 키쿠보단 내가 낫다는 생각에 기쁠지도 모릅니다. 아, 이 만화랑 비슷한 노래가 있군요! 바로 지두의 '대화가 필요해'! 근데 이거 웬만한 만화방에 없다는 게 문제겠군요.



“사춘기”

이건 우리 나라 작품이고,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매니아 사이에선 유명한 이진경 님이 그린 만화입니다. 현재 2권까지 나왔구요.

부제는 '네 여자아이의 감정과 경험의 회고록'입니다. 어느 순정만화와 달리 사랑 이야기는 안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만화 주인공들을 잘 살펴보면 고등학생들인데 (열리파중~), 여기에는 바로 여대생이 나온단 말씀! 그것도 러브러브에 눈이 팔린 애가 아니라 과방도 가고, 학생운동도 하고, 강의를 듣는(크.. 눈물난대)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네 아이들은 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집에서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엠타에 가고, 재수없는 선행량 맞팔 돌 줄도 아는 '현실' 속의 인물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주인공들 생각은 어찌 그리 오묘한지..

이 작품의 제목인 '사춘기'라는 말은 어쩌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치기어린 한 때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바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다 쓸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해요.

14

문과대 여성주의 모임 '모반'



문학과 페미니즘

- 팜 모리스(Pam Morris) 문예출판사

편하고 색다를 것 없어 보이는 제목이지만 잘못 생각하기 쉬운 부분들을 짚어주는 동시에 생각의 지평을 넓어주는 책.

문학과 여성의 관계, 여성이 문학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문학 속에서 여성은 어떤 존재인가, 문학작품을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여성은 어떤 글쓰기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에 쉽고도 재미있고 풍부하게 대답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문학이 사회나 지배 담론과 가지는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서 어떻게 여성들의 언어를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해 줍니다. '더 읽어야 할 책들'을 매 장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어 그 책들과 비교하며 함께 읽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내 방에 아마존을 키워라

- 베티 도슨 (현실문화연구)

'마스터베이션의 전도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베티 도슨. 수식어 못지 않게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는 책 속에서 한층 더 대담하고 솔직하게 다가옵니다.

여성이 자신의 몸을 알고, 자신의 성기를 사랑하기, 그리고 자신의 에로티시즘을 발견하여 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스스로 배우기. 이 책은 그것을 통해 스스로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 방법을 터득하

도록 안내해 줍니다.

먹는 즐거움, 꾸미는 즐거움, 여러가지 놀이의 즐거움도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즐거움을 멀리하고 때로는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 곧 나의 성적인 욕구를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찾아내서이지요. 남자 없이도 말이지요^^ 내 몸의 욕구와 반응, 그리고 황홀경은 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해 가장 잘 파악될 수 있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책이었어요^^ 모든 여성에게도 그러하리라 믿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15

모반을 꿈꾸다